

2020학년도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2020. 3. 30.

순서

- 개 요
- 입 학 전 형 평 가 위 원 회
- 선 행 학 습 영 향 평 가 대 상
- 1 차 시 험 (필 기) 분 석
 - 국 어
 - 영 어
 - 수 학
- 2 차 시 험 (면 접) 분 석
 - 집 단 토 론
 - 구 술 면 접
- 평 가 결 과 요 약

※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육군사관학교에 있습니다.
무단전재나 복제, 재배포, 상업적인 사용을 금합니다.

개 요

□ 목 적

생도선발시험 중 「공교육 정상화법」에서 정한 대학별 고사에 해당하는 1차 시험(필기)과 2차 시험(면접)에 대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기 위함

□ 관련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16. 12. 20.)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 ① 대학 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학 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제10조의 2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2(대학 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 ① 대학 등의 장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 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6. 9. 5.)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평가)

- ② 대학 등의 장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법무실-301(2017.3.23.) 공교육 정상화법 적용 관련 법무 검토 결과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구성기준

- 위원장 : 평가관리실장
- 간 사 : 생도선발과장
- 위 원 : 7명 이상

□ 2020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 입학전형 진행 : 2019. 6. 21. ~ 2019. 12. 13.
-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구성기간 : 2020. 1. 20. ~ 2020. 4. 30.
- 위원회 인원 구성 : 9명(교내 5명, 교외 4명)

구 분	성 명	비 고
위원장		영어교육학 박사, O시험장 면접위원
간 사		심리학 박사, O시험장 면접위원
위 원		수학 박사, 2차 시험 총괄 진행
		중문학 박사, O시험장 면접위원
		정치학 박사, O시험장 면접위원
		OO 고교 교사
		OO 고교 교사
		OO 고교 교사
		OO 고교 교사

※ 「2020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공개 : '20. 3. 31. 한

☞ 육사 인터넷 홈페이지 '입학안내' 란에 공지

선행학습 영향 평가대상

□ 평가대상 문항 총괄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과목명	문항수	교과	비고
1차 시험 (필기)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든 전형에 동일하게 적용)	공통	국어	45	국어	대학수학 능력시험 형식
			영어	45	영어	
		이과	수학 '가'형	30	수학	
		문과	수학 '나'형	30		
2차 시험 (면접)		공통	면접시험	7개 분야	비교과 또는 기타*	구술면접, 학교생활기록부 등
			체력검정	3개 종목		기초 체력 측정
			신체검사	-		육군 기준

* 특정 교과와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내용은 '기타' 항목으로 표기

□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사항 점검표

구 분	세 부 내 용	이행 여부	비 고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공개	○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② 문항 총괄표 작성(충실성)	○	
	③ 문항 제출 양식 작성(충실성)	△	제한적 공개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인원 포함 여부	○	4명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	4명

□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 출제 전

- 1차 시험(필기)의 과목 및 범위를 고교 교육 과정의 범위로 한정하여 세부시행계획 및 모집요강에 공지
- 시험과목 : 국어, 영어, 수학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형식)
- 출제범위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영어 듣기 제외)

영역		과목
국어(45문항)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영어(45문항)		영어 I, 영어 II
수학 (각 30문항)	가형	미적분 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나형	수학 II,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 2차 시험(면접)은 체력검정, 신체검사와 가치관, 태도, 적성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교과에 대한 선행학습과 관련성이 없고, 별도 준비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정보만을 모집요강에 공지

구분	시험 기준
신체검사	• 세부 기준 :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 규정」 중 장교 선발 및 입영기준 적용 • 신체등위(신장/체중) : 3급인 경우 2차 시험 최종심의위원회에서 합·불 결정, 4급 이하 불합격 • 신체검사 : 4급 이하인 경우 불합격
면접시험	• 집단토론, 구술면접, 학교생활, 자기소개, 외적 자세, 심리검사, 종합판정 등 7개 분야 • 사전 AI면접 실시 후 개인별 면접결과는 일부 면접분야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 AI면접 시기 및 방법은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안내 예정 • 면접시험 점수부여 및 합격, 불합격, 보류 판정 ※ 면접시험 불합격은 최종 불합격, 보류는 2차 시험 최종심의위원회에서 합·불 결정
체력검정	• 3개 종목별 점수 부여 : 오래달리기(남 1.5km, 여 1.2km), 팔굽혀펴기(2분), 윗몸일으키기(2분) • 오래달리기에만 불합격 기준 적용 : 남 7분 39초 이상, 여 7분 29초 이상 불합격 • 2종목 이상 16급(보류) 획득 시 2차 시험 최종심의위원회에서 합·불 결정 ※ 우선선발 지원자의 체력검정 과락 기준 : 오래달리기 종목기준만 별도 적용

○ 출제과정

- 1차 시험(필기) :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 공통사항임
 - 출제위원 : 총 22명 중 사관학교 교수 7명(외국인 포함), 고등학교 교사 15명
 - 검토위원 : 총 6명 중 고등학교 교사 6명
- 2차 시험(면접)
 - 면접시험 각 분야별 평가 중점 : 교과와 무관, 선행학습 유발을 최소화 하도록 수립
 - 면접시험 위원 : 교수(현역, 군무원) 및 훈육요원 등 〇〇명 편성

분 야	평가 중점	비 고	
집단토론	의사소통능력	비교과 또는 기타*	
구술면접	국가관 및 안보관		
학교생활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선행학습 평가 미해당
자기소개	지원동기		
외적 자세	신체 기본자세 및 균형		
심리검사	심리적 안정성	다면적인성검사 표준화 인성진단검사 성격5요인 검사	
종합판정	일관성 및 특이사항 확인		

* 특정 교과와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내용은 '기타' 항목으로 표기

- ☞ 전체적으로 문제에 대한 특정한 정답을 요구하기보다는 의사소통 능력, 수험생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한 성격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답변의 설득력, 일관성, 진정성, 자신감, 배려심, 판단력 등을 평가

1차 시험(필기) 분석

○ 국

어

○ 영

어

○ 수

학

국 어

□ 출제 근거

- 2020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이수한 국어 교과목의 검·인정 교과서, <국어 I>, <국어 II>,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을 기준으로 문항을 구성함.
- 고등학교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적용 교육 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5] “국어과 교육 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9] “과학과 교육 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 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 과정”

□ 문항 분석 결과

○ 화법과 작문

문항 번호	1 ~ 10
출제 의도	• 화법의 원리, 매체 활용, 듣기의 과정에 대해 평가함 • 효과적인 표현 전략에 대해 평가함
검토 의견	•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는 화법 3문항, 화법과 작문 통합 4문항, 작문 3문항으로 각 영역별 비중을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제시문의 내용 역시 고등학교 학생 이라면 쉽게 접했을 제재를 다루었고 평가 내용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항을 해결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1~3번 문항에서는 화법 영역에서는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학생의 발표 자료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3개 문항이 출제되었다. 화법에서 가장 본질적 요소인 표현전략, 시각자료인 매체활용의 효과 파악 능력, 발표에 대한 비판적 이해능력 등을 검증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 4번에서 7번까지는 회의(화법)를 통한 내용 생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작문 과정을 자료로 제시하였다. 먼저 회의를 통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안내문을 작성 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 문항들을 통해 참가자들이 발표한 내용의 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효과적인 화법의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화법의 과정을 올바르게 작문의 과정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으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제문을 잘 만들어 낼 수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 8~10번까지는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라는 주제로 설득하는 글쓰기를 작성 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내용을 생성,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 하는 과정의 타당성, 작성한 원고의 고쳐쓰기 능력 등을 점검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 문법

문항 번호	11 ~ 15
출제 의도	• 문법에 대한 이해와 분석 능력을 평가함 • 규칙을 새로운 국어 자료에 적용,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검토 의견	• 문법 영역에서는 음운, 단어, 문장, 의미, 중세 국어 등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 5개 문항이 출제되었다. 12번을 제외하고는 <보기>를 통해 문법 규칙 및 현상에 대한 보조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2번 문항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어 있는 품사와 문장 구조에 관한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 <보기>를 통해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예시로 비음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이 까다롭게 여기는 중세 국어 역시 의미론에서 출제함으로써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문학(현대시)

문항 번호	16 ~ 18
출제 의도	• 현대시에 대한 이해 능력과 감상 능력을 평가함 • 서로 다른 두 작품을 연관시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
검토 의견	• 신석정의 ‘대바람 소리’와 김용택의 ‘그대 생의 솔숲에서’ 두 편의 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3개 문항이 출제되었다. 먼저 두 편의 시에서 공통적인 표현상의 특징을 출제하였으며, 두 작품에 제시된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두 작가 모두 고등학생이 한번은 접해보았을 만한 친숙한 작가여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다. 또한 17번 문항에서는 <보기> 자료를 바탕으로 신석정의 시적 경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게 출제하였다. • 17, 18번은 모두 앞뒤의 맥락과 수식을 통해 시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며 고등학교 문학 교육과정의 수준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 문학(현대소설)

문항 번호	19 ~ 22
출제 의도	· 현대소설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검토 의견	· 한승원의 '어머니'의 일부분을 제시하고 소설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3개의 문항을 출제하였다. 작품에 대한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 시대 배경, 인물이 처한 상황 등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1번의 <보기> 자료를 통해 시대적 배경, 작품의 주제 의식을 제시하여 학생의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 소설에서 가장 핵심 문항인 서술상의 특징, 인물의 심리, 주제 의식을 각각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각 문항 모두 고등학교 문학에 등장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독서(인문)

문항 번호	22 ~ 25
출제 의도	· 지문에 대한 이해, 분석, 비판적 검토 능력을 평가함
검토 의견	· 인문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즐겨 사용하는 SNS를 바탕으로 교호 관계에 대한 내용이 지문으로 제시되었고 이에 따른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글의 전개 방법, 지문을 통해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 분석하는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교호 관계라는 용어가 비교적 생소하였지만 지문에서 개념 설명과 예시를 활용하여 설명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다. 특히 예시로 활용한 SNS의 경우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를 낮출 수 있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사용하였으며 국어과 교육과정에 '글의 전개 과정 이해' 등의 성취 기준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 면에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문학(고전시가, 수필)

문항 번호	26 ~ 30
출제 의도	•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 능력을 평가함 • 두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함
검토 의견	• 고전시가 안도환의 ‘만언사’와 고전수필 유몽인의 ‘유두류산록’을 연결하여 5개의 문항을 출제하였다. 만언사의 경우 원문을 쉽게 풀이하여 제시하였으며 낯선 어휘의 경우 각주를 달아 현대어로 풀이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만언사의 경우 문학교과서에서 접할 수 있는 작품이었으며 유배가사의 대표 작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유몽인의 ‘유두류산록’ 역시 어려운 어휘를 각주를 통해 해결해주었고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는 30번 문항의 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작품 해석의 방향성을 쉽게 잡을 수 있었다. • 두 작품에서 드러난 공통된 정서 파악, 소재의 상징성, 표현상의 특징, 외부 준거에 의한 작품 해석 등 고등학교 문학 교육과정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이 출제되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독서(사회)

문항 번호	31 ~ 35
출제 의도	• 이해 능력, 분석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을 판단함 • 문맥을 통해 어휘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함
검토 의견	• 사회 영역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지문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 파악, 글쓴이의 견해 파악,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문항 등을 출제하여 사실적 독해능력과 추론적 독해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앞뒤의 문맥을 활용하여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유추하는 문항을 출제하여 독해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이 지문의 가장 핵심 개념인 ‘재산권’은 고등학교 <사회> 교육과정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문에서도 재산권의 개념, 재산권의 의의와 기능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준의 독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수준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문학(고전소설)

문항 번호	36 ~ 39
출제 의도	•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 능력을 평가함 • 고전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 배경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검토 의견	• 고전소설 ‘윤지경전’의 일부를 지문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4개의 문항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윤지경전’의 경우 다양한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연계 교재에서 수록 빈도가 높은 작품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작품을 접해보지 못한 학생이라도 앞부분의 줄거리, 중략부분의 줄거리를 제시하였고 39번 문항의 <보기>를 통해 작품의 배경 지식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 사자성어 등 어려운 어휘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소설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인물의 행적, 공간적 배경의 상징성 등을 출제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독서(기술)

문항 번호	40 ~ 45
출제 의도	• 사실적 독해 능력, 추론 능력 등을 평가함 • 문맥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함
검토 의견	• SLR 장비와 적응광학 장비에 관한 제재를 바탕으로 6개의 문항을 출제하였다. 주어진 정보를 제대로 읽었는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문맥을 통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지 아울러 평가하고 있다. • 지문에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추론하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준에서 요구하는 독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 기술 지문에서 44번, 45번 문항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 역시 주어진 지문을 바탕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다.

□ 총 평

2020학년도 사관학교 생도선발 1차 시험 국어문제는 교육과정 학습 내용, 성취 기준에 부합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항으로 출제 되었음.

영 어

□ 출제 근거

- 2020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이수한 영어 교과목의 검·인정 교과서, <영어 I>, <영어 II>를 기준으로 문항을 구성함.
- 적용 교육 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14] “영어과 교육과정”

□ 문항 분석 결과

- 회화(듣기, 말하기)

문항 번호	1 ~ 6
출제 의도	• 회화 시 전체 내용 추론 및 요약 능력을 평가함 • 회화 시 대화 인물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체 내용에 맞는 표현 구사 능력을 평가함
검토 의견	• 평가목표 - (1, 5번 문항) 대화에 제시된 특정 정보를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 (2, 3번 문항) 가상의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대화나 담화를 읽고 전체적인 맥락과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응답을 표현할 수 있는 간접 말하기 능력 - (4번 문항) 대화를 읽고 내용의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대화자의 관계를 추론하는 능력 - (6번 문항) 대화를 읽고 말하는 이의 의도나 목적 등을 파악하는 능력 -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영어I, 영어II의 성취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음. • 출제형식 - (1, 5번 문항) 내용 일치/불일치 - (2, 3번 문항) 적절한 응답 추론 - (4번 문항) 대화자 관계 추론 - (6번 문항) 대화 목적 파악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출제 형식의 문제가 출제됨. • 소재 및 언어분석 - 일상 대화, 물건 구매, 음식 메뉴 선택, 집 구매 거래, 서핑, 날씨, 가격 흥정에 관한 소재가 제시됨.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과 말의 연결, 상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발화 등 학습에 도움이 되는 언어를 바탕으로 함. • 회화영역은 평가목표, 출제 형식, 소재 및 언어분석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문항을 해결하는데 선행학습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독해

문항 번호	7 ~ 14 / 16 ~ 17 / 26 ~ 30
출제 의도	• 독해 시 내용 파악 및 요약 능력을 평가함 • 독해 시 글의 제목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함 • 독해 시 구체적인 내용, 인물들 간의 관계 파악 능력을 평가함 • 독해 시 어휘의 의미와 본문 내용 일치시키는 능력을 평가함
검토 의견	• 평가목표 - (7번 문항)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 의도, 목적 등을 파악하는 능력 - (8~14번 문항) 글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 추론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글의 주제, 요지, 제목 등을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 - (16번문항) 글에 제시된 특정 정보를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으로 글의 내용 일치/불일치나 기타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17번 문항)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지칭 추론 능력 - (26~30번 문항)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으로써 글에서 빠진 정보(단어, 구, 절, 문장)를 글의 내용에 의거하여 추론할 수 있는 능력 -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영어I, 영어II의 성취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음. • 출제형식 - (7번 문항) 필자의 주장 - (8번 문항) 글의 시사점 - (9, 10번 문항) 글의 요지 - (11, 12번 문항) 글의 주제 - (13, 14번 문항) 글의 제목 - (16번 문항) 내용 일치/불일치 - (17번 문항) 지칭 추론 - (26~30 문항) 빈칸 추론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출제 형식의 문제가 출제됨. • 소재 및 언어분석 - 가치, 인성, 문화, 시사, 상식, 인물 등 일반교양 및 현대사회의 일상적 양상을 이해하고 인식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소재와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단계와 수준을 고려한 언어를 바탕으로 함. • 독해영역은 평가목표, 출제 형식, 소재 및 언어분석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만한 수준으로 생각됨.

○ 작문

문항 번호	15, 31 ~ 37
출제 의도	• 도표를 보고 묘사하는 작문 능력을 평가함 • 작문 시 논리 전개 및 내용 파악 능력을 평가함 • 작문 시 내용을 파악하여 결론 작성 능력을 평가함
검토 의견	• 평가목표 - (15번 문항)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여 가상의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간접 쓰기 능력을 바탕으로 도표를 보고 그와 일치하지 않게 쓰여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31번~37번)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여 가상의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간접 쓰기 능력을 바탕으로 읽기 자료를 통해 흐름에 무관한 문장이나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 글의 순서 파악, 그리고 문단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 -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영어I, 영어II의 성취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음. • 출제형식 - (15번 문항) 도표 내용 일치/불일치 파악 - (31, 32번 문항) 글의 순서 파악 - (33, 34번 문항)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 - (35, 36번 문항) 글의 흐름에 무관한 문장 파악 - (37번 문항) 문단 요약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출제 형식의 문제가 출제됨. • 소재 및 언어분석 - 성별에 따른 군대 내에서의 역할, 자유무역협정, 정보 관리 사업, 법, 항생제, 식물, 지리 등에 관한 소재로 창의성 및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 단계와 수준을 고려한 언어를 바탕으로 함. • 작문영역은 평가목표, 출제 형식, 소재 및 언어분석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의 범위와 수준에 부합함.

○ 문법 및 어휘

문항 번호	문법(18~21), 어휘(22~25)
출제 의도	· 독해 시 문법 능력을 평가함 · 독해 시 어휘 능력 및 어휘의 의미와 본문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능력을 평가함
검토 의견	· 평가목표 - (18~25번 문항) 글의 전체적인 의미나 문장 간의 의미적 관련성을 통하여 어법의 적합성이나 어휘의 적합성을 파악하는 능력으로써 문맥에 따른 어법, 어휘의 정확성 파악 및 지칭 추론 등을 할 수 있는 능력 -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영어I, 영어II의 성취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음. · 출제형식 - (18~19번 문항) 어법 판단 - (20~21번 문항) 어법상 맞는 표현 고르기 - (22~23번 문항) 문맥상 낱말의 쓰임의 적합성 판단 - (24~25번 문항) 문맥상 맞는 낱말 고르기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출제 형식의 문제가 출제됨. · 소재 및 언어분석 - 관계대명사, 현재분사, 재귀대명사, 분사구문, 보어, 도치,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 등 교육과정 범위 내의 문법 요소를 다루고, 어휘 역시 문항의 수나 난이도 정도가 평가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출제되었다고 판단함. · 문법 및 어휘영역은 평가목표, 출제 형식, 소재 및 언어분석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아 고교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적절함.

○ 복합교과영역(장문독해)

문항 번호	38 ~ 45
출제 의도	• 독해 시 내용 파악능력 및 논리적 글 읽기 능력을 평가함 • 독해 시 글의 제목 파악능력 및 어휘의 의미와 본문 내용 일치시키는 능력을 평가함 • 독해 시 구체적인 내용 파악능력 및 어휘의 의미와 본문 내용 일치시키는 능력을 평가함 • 작문 시 논리전개 능력 및 독해 시 구체적인 내용 파악능력을 평가함
검토 의견	• 평가목표 - (38, 40번 문항) 글을 읽고 글의 주제, 요지, 제목 등을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 - (39, 43번 문항) 글의 전체적인 의미나 문장 간의 의미적 관련성을 통하여 어휘의 적합성을 파악하는 능력 - (41번 문항)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으로써, 글에서 빠진 정보(단어)를 글의 내용에 의거하여 추론할 수 있는 능력 - (42, 45번 문항) 글에 제시된 특정 정보를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으로 글의 내용 일치/불일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44번 문항)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문장 간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여 가상의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써 읽기 자료를 통해 글의 순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영어I, 영어II의 성취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음. • 출제형식 - (38번 문항) 글의 주제 - (39번, 43번 문항) 문맥상 낱말의 쓰임의 적합성 판단 - (40번 문항) 글의 제목 - (41번 문항) 빈칸 추론 - (42번, 45번 문항) 내용 일치/불일치 - (44번 문항) 글의 순서 - 대학수학능력시험능력과 유사한 출제 형식의 문제가 출제됨. • 소재 및 언어분석 - 시사, 이야기를 소재로 학생들의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과 자연스러운 언어습득과 실제적인 의사소통 활동에 도움이 되는 언어를 바탕으로 함. • 복합 교과영역(장문독해)은 평가목표, 출제 형식, 소재 및 언어분석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음.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했다면 지문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사고 과정을 통하여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함.

□ 총 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친숙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지문이나 전문 용어 및 어휘가 제시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나 요인은 없는지에 관해 교과영역에 따라 평가목표, 출제형식, 소재 및 언어분석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2020학년도 사관학교 생도선발 1차 시험 영어영역은 고교과정 학습내용 성취기준에 부합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음.

수 학

□ 출제 근거

○ 적용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 출제범위

구 분	세부 과목
수학 “가”형	미적분 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수학 “나”형	수학 II,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 수학 “가”형 문항 분석 결과

과 목	단 원	수학 “가”형			
		문항수	배 점	문항 번호	합 계
미적분Ⅱ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	4	16	총 12문항 41점
	삼각함수	4	11	1, 3, 12, 28	
	미분법	4	14	10, 19, 21, 22	
	적분법	3	12	17, 20, 30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	3	10	5, 25, 27	총 9문항 30점
	확률	3	10	4, 8, 18	
	통계	3	10	7, 14, 24	
기하와 벡터	평면곡선	3	9	6, 13, 23	총 9문항 29점
	평면벡터	1	2	2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5	18	9, 11, 15, 26, 29	
합 계		30	100	-	

○ 미분법Ⅱ

문항 번호	1, 3, 10, 12, 16, 17, 19, 20, 21, 22, 28, 30
출제 의도	• 미적분Ⅱ 영역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미분법, 적분법에서 총 12 문항이 출제되어 미적분Ⅱ의 교과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음. • 출제된 문항들을 통해 계산능력(2문항), 개념이해능력(6문항), 문제해결능력(2문항), 추론능력(2문항)을 적절하게 평가하고자 하였음.
검토 의견	• 미적분Ⅱ 영역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문항, 삼각함수 4문항, 미분법 4문항, 적분법 3문항이 출제되었으며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정도를 물어보는 문항부터 최고난도 문항까지 난이도별로 고르게 출제되었다. 그림 또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항이 출제되어 있으며 고난도 문항으로는 21번, 30번 문항을 들 수 있다. •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고 관계를 파악하는 개념 이해 문항이 출제되었다. • 삼각함수에서는 삼각함수의 뜻에 대한 개념, 삼각함수의 극한값, 삼각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개념 이해 문항, 도형의 닮음을 이용하여 삼각형의 넓이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 해결 문항이 출제되었다. • 미분법에서는 역함수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의 개념 이해 문항,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이용하여 상수의 값에 따라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추론하는 문항, 도함수의 활용인 함수의 극값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 적분법에서는 정적분을 이용하여 입체도형의 부피 구하기,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알고 미분가능성을 활용한 정적분 값을 구하는 개념 이해 문항, 정적분으로 나타낸 함수를 이해하고 미분과 정적분을 이용하여 추론하는 문제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 미적분Ⅱ 영역의 모든 문항은 고교과정 학습내용 성취기준에 부합되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문항을 해결하는 데 선행학습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확률과 통계

문항 번호	4, 5, 7, 8, 14, 18, 24, 25, 27
출제 의도	· 확률과 통계 영역의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에서 각각 3문항씩 총 9문항이 출제되어 확률과 통계의 교과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음. · 출제된 문항들을 통해 개념이해능력(3문항), 문제해결능력(3문항), 추론능력(3문항)을 적절하게 평가하고자 하였음.
검토 의견	· 확률과 통계에서는 순열과 조합 3문항, 확률 3문항, 통계 3문항이 출제되었으며 빈칸을 추론하는 문항이 ‘나’형과 공통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그 외에 개념 이해 2문항이 공통으로 출제되어 ‘가’형, ‘나’형 공통 문항은 3문항이다.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물어보는 문항부터 문제 해결, 추론 문항까지 다양하게 출제되었다. · 순열과 조합에서는 조합의 개념, 집합의 분할을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 해결 문항과 순열을 이용한 점의 이동을 추론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 확률에서는 확률의 덧셈정리 개념 이해, 조건부확률을 이용한 문제해결 문항, 중복조합을 이용한 확률 구하는 과정 추론하는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 통계에서는 이산확률변수의 확률질량함수의 평균, 연속확률변수의 정규분포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평균을 물어보는 개념 이해 문항, 표준편차를 물어보는 문항과 모평균 추정하는 문제 해결 문항이 출제되었다. · 확률과 통계 영역의 모든 문항은 고교과정 학습 내용 성취기준에 부합되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문항을 해결하는 데 선행학습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하와 벡터

문항 번호	2, 6, 9, 11, 13, 15, 23, 26, 29
출제 의도	- 기하와 벡터 영역의 평면곡선, 평면벡터, 공간도형과 공간벡터에서 총 9문항이 출제되어 기하와 벡터의 교과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음. - 출제된 문항들을 통해 계산능력(1문항), 개념이해능력(7문항), 문제해결능력(1문항)을 적절하게 평가하고자 하였음.
검토 의견	- 기하와 벡터에서는 평면곡선 3문항, 평면벡터 1문항,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5문항이 출제되었으며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단원이 다른 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다. - 평면곡선에서는 이차곡선의 정의를 이용한 미지수 구하기, 쌍곡선의 정의를 알고 점근선을 이용하여 원의 반지름 구하기,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한 곡선의 접선 방정식 구하는 개념 이해 문항이 출제되었다. - 평면벡터에서는 두 평면벡터의 내적 뜻을 알고 구하는 계산 문항이 출제되었다. - 공간도형과 공간벡터에서는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여 거리 구하기, 삼수선 정리를 이용한 넓이 구하기, 정사영의 넓이 구하는 개념 이해 문항, 공간도형의 성질과 벡터의 내적을 이용한 내적의 최댓값을 구하는 문제 해결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 기하와 벡터 영역의 모든 문항은 고교과정 학습내용 성취기준에 부합되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문항을 해결하는 데 선행학습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수학 “가”형 총평

2020학년도 사관학교 생도선발 1차 시험 수학 “가”형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기초한 유형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2009 개정 고등학교 고교과정 학습내용 성취기준에 부합하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음.

□ 수학 “나”형 문항 분석 결과

과 목	단 원	수학 “나”형			
		문항수	배 점	문항 번호	합 계
수학Ⅱ	집합과 명제	2	5	1, 12	총 11문항 35점
	함수	3	10	5, 17, 24	
	수열	4	14	4, 14, 23, 29	
	지수와 로그	2	6	2, 15	
미적분Ⅰ	수열의 극한	2	7	18, 22	총 11문항 37점
	함수의 극한과 연속	3	8	3, 11, 25	
	다항함수의 미분법	3	11	8, 20, 21	
	다항함수의 적분법	3	11	9, 27, 30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	2	8	16, 28	총 8문항 28점
	확률	3	11	6, 19, 26	
	통계	3	9	7, 10, 13	
합 계		30	100		

○ 수학Ⅱ

문항 번호	1, 2, 4, 5, 12, 14, 15, 17, 23, 24, 29
출제 의도	· 수학Ⅱ 영역의 집합과 명제, 함수, 수열, 지수와 로그에서 총 11문항이 출제되어 수학Ⅱ의 교과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음. · 출제된 문항들을 통해 계산능력(1문항), 개념이해능력(8문항), 문제해결능력(1문항), 추론능력(1문항)을 적절하게 평가하고자 하였음.
검토 의견	· 수학Ⅱ 영역에서는 집합과 명제 2문항, 함수 3문항, 수열 4문항, 지수와 로그 2문항이 출제되었다. · 집합과 명제에서는 여집합과 교집합을 이해하여 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는 문항, 명제의 필요충분조건에서 충분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값을 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 함수에서는 일대일 대응과 합성함수, 항등함수의 개념을 이해하는 문항,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무리함수와 역함수를 이해하여 함숫값을 구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 수열에서는 등비수열을 이해하여 해결하는 문항,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하여 수열의 항을 구하는 문항, 수열의 합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항,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과 등차수열을 이용하여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수학적 귀납법의 경우 복잡한 점화식이 아닌 현 고교 교육 과정에 충실한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 지수와 로그에서는 거듭제곱근을 계산하는 문항, 지수법칙과 곱셈정리를 이용하여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 수학Ⅱ 영역의 집합과 명제, 함수, 수열, 지수와 로그의 모든 문항은 친숙하고 평이하여 고교과정 학습 내용 성취기준에 부합하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어 해당 문항을 해결하는데 선행학습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미적분 I

문항 번호	3, 8, 9, 11, 18, 20, 21, 22, 25, 27, 30
출제 의도	· 미적분 I 영역의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에서 총 11문항이 출제되어 미적분 I 의 교과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음. · 출제된 문항들을 통해 계산능력(1문항), 개념이해능력(5문항), 문제해결능력(3문항), 추론능력(2문항)을 적절하게 평가하고자 하였음.
검토 의견	· 미적분 I 영역에서는 수열의 극한 2문항, 함수의 극한과 연속 3문항, 다항함수의 미분법 3문항, 다항함수의 적분법 3문항이 출제되었다.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정도를 물어보는 문항부터 최고난도 문항까지 난이도별로 고르게 출제되었다. 고난도 문항으로는 20번, 21번, 30번 문항을 들 수 있다. · 수열의 극한에서는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도형 넓이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해결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지수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는 함수의 극한을 이해하여 그래프를 통해 극한값을 구하는 문항, 함수의 연속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하는 문항, 함수의 극한과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는 미분계수의 정의와 곱의 미분법을 이해하여 적용하는 문항, 미분가능성과 극대를 이용하여 함숫값을 구하는 문제해결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함수의 연속과 미분 가능성을 이용하여 함수를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 다항함수의 적분법에서는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이해하여 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항, 정적분의 정의와 곱의 미분법과 항등식의 정의를 사용하여 함숫값을 구하는 문제해결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미분가능성과 정적분을 이용하여 함숫값을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 미적분 I 영역의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 등 모든 문항은 고교과정 학습 내용 성취기준에 부합하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기본 개념과 추론능력을 함께 요구하는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되었으나 다른 문항과 더불어 해당 문항을 해결하는데 선행학습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확률과 통계

문항 번호	6, 7, 10, 13, 16, 19, 26, 28
출제 의도	· 확률과 통계 영역의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에서 총 8문항이 출제되어 확률과 통계의 교과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음. · 출제된 문항들을 통해 개념이해능력(4문항), 문제해결 능력(3문항), 추론능력(1문항)을 적절하게 평가하고자 하였음.
검토 의견	·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는 순열과 조합 2문항, 확률 3문항, 통계 3문항이 출제되었다. 빈칸을 추론하는 문항이 ‘가’형과 공통 문항으로 출제되었으며, 그 외에 개념 이해 2문항이 공통으로 출제되어 ‘가’형, ‘나’형 공통 문항은 3문항이다. · 순열과 조합에서는 순열의 수를 이해하여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항, 집합의 분할을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 확률에서는 확률의 덧셈정리를 이해하여 확률을 구하는 문항, 중복 조합을 이용하여 빈칸을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 통계에서는 연속확률변수의 확률밀도함수를 이해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 독립시행의 확률과 이항분포의 평균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모평균의 추정을 이용하여 신뢰구간을 구하는 문제해결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 확률과 통계의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의 모든 문항은 친숙하고 평이하여 고교과정 학습내용 성취기준에 부합하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어 해당 문항을 해결하는데 선행학습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수학 “나”형 총평

2020학년도 사관학교 생도선발 1차 시험 수학 “나”형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기초한 유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고교과정 학습내용 성취기준에 부합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주제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학생이라면 선행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음.

2차 시험(면접) 분석

○ 집 단 토 론

○ 구 술 면 접

□ 2차 시험(면접) 개요

○ 개 요

육군사관학교 생도선발 2차 시험(면접)은 1차 시험(필기)에 합격한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원자의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1차 시험과는 달리, 집단토론과 구술면접은 지원자에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자의 논리적인 사고력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며, 장차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장교에 부합하는 인성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구 분	집단토론	구술면접
시 간	30분: 준비 10분 + 토론 20분	50분: 약술 40분 + 구술 10분
면접내용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역사관 · 국가관 · 안보관 · 대적관 · 동맹관 등에 관한 이슈
평가요소	· 문제에 대한 이해력 · 자신의 의견에 대한 논리적 표현력 · 의견 개진에 있어서의 자신감 · 타인의 의견에 대한 공감력 · 포용력 등	· 주어진 요약문에 대한 이해도 ·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에 대한 논리적 표현력 ·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판단력 · 의견 개진에 있어서의 논리성 · 전반적인 주도성 및 자신감
진행방식	· 대상: 6명 내외 · 구성: 조별 찬·반 그룹 구분 편성 · 방식: 자유토론 · 평가: 면접관들의 독립적 평가	· 대상: 개별 · 구성: 개별 면접 (약 4~5질문) · 방식: 질의응답 · 평가: 면접관들의 독립적 평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사회적 전반에 걸쳐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문제들 중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이해하기 쉽게 질문 내지는 요약문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에 대한 선지식보다는 평소의 그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개진하고, 면접대상자들 상호 간 또는 면접관들과의 의사소통 능력, 그 과정에서 보이는 공감능력, 가치관 전반에 걸친 요소들을 평가함. 따라서 선행학습 없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시험단계로 판단됨.	

○ 집단토론

집단토론에서는 사회적으로 회자되고 있고 여러 가지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소그룹 단위 지원자가 찬·반 그룹을 형성하여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한다. 토론 준비시간은 10분이 부여되며, 미리 제공받은 제시문을 이해하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룹의 의견을 정리한다. 제시된 이슈에 대해 지원자가 어느 쪽 의견에 속하는지는 평가기준이 아니며, 어떠한 의견이든 타당한 근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지원자들의 소통과정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경청하고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며, 타인의 의견에 대한 공감능력 및 포용능력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집단 토론 문제 예시>

사회적으로 대학입시 정시선발 비율 확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정시가 수시보다 더 공정하고, 수시가 수험생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시선발 비율 확대에 찬성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정시가 확대되면 대학 지원기회가 축소될 수 있고, 공교육 발전에도 저해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관련 문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하여 평가하시오.

○ 주요 평가 요소

- 사회적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지원자가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지를 평가
-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타인의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포용적 자세에 대해 평가
-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할 때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논리적인 근거나 사례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지 평가

○ 구술면접

구술면접은 지원자의 역사관·국가관·안보관·대적관·동맹관 등에 관한 지문을 읽고 약술과 구술을 통해 지원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형태로 진행된다. 지원자들이 지문을 읽고 작성한 약술을 면접관이 읽고 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 혹은 연관된 내용까지도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되는 지문 및 질문들은 사전 학습이나 선지식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지원자가 성장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가치관을 묻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설사 그 지시문에 대한 아는 바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지원자의 지식체계 안에서 이를 전개해나가는 과정에서의 논리성을 판단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시 말해 지원자의 선지식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에 얼마나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가를 묻는 면접단계이다.

<구술 시험 문제 예시>

다음에 주어진 지문을 읽고, 지문의 의견을 요약하고 지문의 의견에 대한 지원자의 의견을 간략히 약술하시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으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이 시작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트위터 글에 대해 “(분담금 증액은) 대통령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해온 이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잇따라 나오는 미국의 전방위적이고 노골적인 분담금 인상 압박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1000자 내외 지문>

○ 주요 평가 요소

- 지원자가 지문의 의견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평가
- 평화유지와 국가수호라는 국군의 임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묻고, 민주시민이자 정예 육군 장교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치우치거나 편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주의 깊게 관찰 및 평가
- 면접관이 제시하는 돌발의견에 얼마나 능동적이며 지혜롭게 자신의 논리로 대응하는가에 대한 평가

○ 선행학습 영향평가 종합 의견

집단토론과 구술면접에 주어지는 주제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수업시간 내지는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이다.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지원자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가에 따라 시험결과가 달라지는 1차 시험과는 다르다. 2차(면접) 시험은 특수목적 대학인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지원자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지닌 주체로서 사고의 논리성, 가치관과 인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과정이다. 앞서 제시된 예시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제들은 옳고 그르다는 정답이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따라서 지원자가 어느 쪽 의견을 주장하는가는 평가점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신 지원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설사 모르는 주제라 할지라도 지문 내지는 면접관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이해(파악)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설명의 논리성,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공감능력,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포용능력 등이 평가의 중요한 요소이다. 대한민국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지원자라면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시험이다. 결론적으로 집단토론 및 구술시험의 모든 문제는 선행학습을 요구하지 않으며,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되었다.

평가결과 요약

구 분	평 가 항 목	점검 결과	이의 내용
시험 계획 단계	시험의 절차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적합	없음
	모집요강의 공지방법 및 기간이 적절하였다.	적합	없음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출제됨을 모집요강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적합	없음
	전문성을 보유한 출제위원을 위촉하였다.	적합	없음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적합	없음
	출제시 현직 고교교사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적합	없음
시험 실시 단계	시험시행 후 문항, 모범답안을 공지하고 있다.	적합	없음
	시험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다.	적합	없음
	시험 이후 제기된 민원 또는 이의제기에 충분히 검토하였다.	적합	없음
	구조화된 면접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적합	없음
	면접과제 사전 준비를 통해 주관에 의한 질문을 배제하였다.	적합	없음
	면접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다.	적합	없음
영향 평가 단계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 입학전형의 영향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잘 구성하고 있다.	적합	없음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다.	적합	없음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현직 고교교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다.	적합	없음
	평가계획의 절차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적합	없음